

요한복음에 계시된 영광과 영광스럽게 됨

2/10 월요일

아침의 누림**롬 3:23-25**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25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행 7:2 스테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벧후 1: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벧전 5: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전 2:7 오히려 우리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롬 8:21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표현하도록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거슬렀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신에 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있는 자아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표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요구 아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유죄판결 아래 있다.(롬 3:23 각주 1)

화해 장소는 출애굽기 25 장 17 절에서 언약궤 위에 있는, 죄를 덮는 덮개로 예표되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였다.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죄들을 드러내어 유죄판결 했다. 그러나 속죄일에 언약궤의 덮개 위에 속죄하는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인 편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덮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덮는 이 덮개 위에서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으셨다. 또 통치상 하나님의 의와 조금도 모순되지 않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언약궤의 덮개를 가리고 있는 그룹이 지켜보는 데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 ...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의 예표인데(요 1:29),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영광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진정시키셨다.(롬 3:25 각주 3)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출 16:10, 24:16-17 ...)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것처럼(출 40:35, 왕상 8:11), 눈에 보이는 영광이었을 것이다(비교 행 7:55).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신 분은 바로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성별)시키고 (출 29:43)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큰 격려와 힘이였다(창 12:1, 4).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은 신약의 믿는 이들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부르신다 (벧후 1:3).(행 7:2 각주 2)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 한 가지는 영광이다. ... 사도행전 7 장 55 절은 “스테반이 ...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 보였다.”라고 말한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시켰다(비교 행 7:2).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큰 격려와 힘이였다(창 12:1, 4).

베드로후서 1 장 3 절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혹은 그분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5 장 10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2 장 10 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가리킨다(롬 8:21).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히 2:10).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셨던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다(1:1, 14). 이어서 1 장 18 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심 안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영광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졌고, 이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전 2:7, 살전 2:12).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11, 155-1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11

2/11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히 2: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계 21: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롬 8:17, 23

17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2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빌 3: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 6:20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에 들어가심으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살전 2: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실 수 있다. 골로새서 3 장 4 절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분은 나타나시어 우리의 구속받고 변형된 몸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롬 8:23, 빌 3:21, 살후 1:10).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포함한 우리 전 존재를 적시실 것임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 몸을 변형되게 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1 장 27 절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그 영광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영광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체현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씨이다. ... 결국 이 씨의 성장은 믿는 이들의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꽃’을 산출할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80, 11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믿는 이들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되는 중이며(고후 3:18),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히 2:10).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롬 8:17, 30),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분의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그분의 그릇들인 우리에게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롬 9:23).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분의 용기(容器), 곧 존귀한 그릇이 되도록 그분의 주권에 의해

미리 정해졌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계 21:11) 곧 하나님의 표현이 있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은 성을 통해 빛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성이 그분의 영광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성이 하나님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릇임을 가리킨다. ...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의 교회생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님으로 이 놀라운 신성한 속성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11, 156-157 쪽)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로마서 8 장에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그분께서 미리 아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과정을 거쳐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으로 끝날 것을 말해 준다(29-30 절). 또한 로마서 8 장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창조물 자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한다(19-21 절). 이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성취될 것이며(빌 3:21),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골 3:4).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골 1:27).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로서 천년왕국 동안 내내 지속될 것이며,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계 21:11, 23). (히 2:10 각주 3)

개척자, 곧 선구자이신 예수님은(히 6:20) 먼저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동일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고전 2:7, 살전 2:12). 그분은 길을 여셨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히 2:10 각주 4)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1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80; 진리 공과, 개정판, 4 단계, 4 권, 51 과

2/12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7: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마 25:31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요 7: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요 17:5, 24

5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눅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고,

벧후 1:17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요 17:22, 24)과 그분의 인성의 영광(시 45:3)과 그분의 부활의 영광(요 7:39, 행 3:13-15)과 그분의 승천의 영광(히 2:9)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 25:31 각주 3)

주님은 제한받는 생활, 곧 제한 아래 머물며 자아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 ... 우리는 요한복음 7 장 16 절부터 18 절까지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통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주님은 그분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사람이신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것이나 그분의 일들에 달려 있지 않았다. 그보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하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달려 있었다. ... 요한복음 7 장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제한 받으셨고, 하나님께 속하셨으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고, 하나님에게서 오셨으며, 그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사람이셨음을 계시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실 때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셨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2 년, 2 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21 장, 313-3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셨다. 요한복음 7 장 39 절 후반절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되지’라는 표현 대신에 ‘부활하지’라는 표현이 쓰였다면 이 절을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지만 이 절은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영광스럽게 되지’는 ‘부활하지’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 장 26 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에 대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을 영광 안으로 이끈(고전 15:43 상, 행 3:13 상, 15 상) 그분의 부활을 가리킨다(눅 24:46).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어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뜻이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이었다.

신약의 사상에 따르면, 부활은 생명의 해방이고, 이러한 생명의 해방은 영광스럽게 되는 문제이다. ‘영광스럽게 됨’은 ‘부활’과 동의어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8, 153-154 쪽)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겪으시어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고(눅 24:26), 하늘들로 오르시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히 2:9).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그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문제에 이를 때 우리는 특히 그분의 인성, 즉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히브리서 1 장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2 장에서 그분은 사람이다. 히브리서 1 장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신성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2 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성에 온전히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바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이다. 이렇게 그분은 사람으로서 하늘들로 오르시어 관을 쓰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으며, 사모할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신 작은 분이셨지만,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늘들로 오르시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광채이고, 존귀는 예수님의 가치, 진가, 위엄과 관련된 귀중함인데, 그 위엄은 그분의 지위와 관련된다(벨후 1:17, 롬 13:7). 베드로전서 2 장 7 절의 ‘보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서 2 장 9 절에 있는

‘존귀’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같다.(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98-9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8

2/13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마 17: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요 12: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딤후 3:16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었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벨후 1:17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요 8:5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니, 곧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십니다.

요 7: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요한이 ...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본 것(요 1:14)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셨을 때였다. 그분께서 변형되신 것은 일종의 영광스럽게 되심이었다. ...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실 때 그분은 인성 안에서 살고 계셨지만, ...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잠시 그분의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냈다(마 17:2). ...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 장 17 절과 18 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1 장, 13-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들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의 육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장막이었다(요 1:14). 마치 하나님의 세키나*영광이 장막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신성한 요소는 그분의 인성 안에 갇혀 있었다. 한때 변형의 산에서 그분의 신성한 요소가 그분의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광 안에서 표현되었고, 세 제자에게 목격되었다(마 17:1-4). 그러나 그것은 다시 그분의 육체 안에 숨겨졌다. 요한복음 17 장에

기록된 기도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아버지도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예언하셨다(12:23, 13:31-32). 이제 주님은 신성을 숨기는 인성의 껍질이 깨어져 그분의 신성한 요소,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도록 죽음을 통과하려고 계셨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분의 인성이 신성한 요소 안으로 높아지고 신성한 요소가 표현되어 그분의 온 존재, 즉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다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었다.

요한복음 17 장에 기록된 영광스럽게 됨에 관한 주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이 기도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다. 부활 안에서 주님의 신성한 요소, 신성한 생명이 주님의 인성 안에서부터 많은 믿는 이 안으로 해방되었고(요 12:23-24), 인성을 포함한 주님의 온 존재가 영광 안으로 이끌렸으며(눅 24:26), 또한 아버지의 신성한 요소가 그 영광 안에서 표현되었다. 하나님은 부활 안에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셨다(행 3:13-15). 둘째, 이 기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많은 지체를 통하여 표현됨으로 주님은 그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엡 3:21, 딤후 3:15-16). 셋째, 이 기도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영광 안에서 충만히 표현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계 21:11, 23-24).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 즉 아들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은 요한복음의 긴 한 단락의 주제이다. 이 단락은 12 장 중반부부터 17 장 끝까지이다. 12 장 23 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선포하셨다. ... 요한복음 12 장 24 절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요소, 신성한 생명을 인성의 껍질 안에서부터 해방하시어 많은 믿는 이를 산출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그 생명 요소를 해방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많은 밀알을 산출하는 것과 같다. ... 요한복음 12 장 24 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것임을 본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임을 의미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9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53, 263-2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9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53; 위트니스 리 고봉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1 장

2/14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17:1, 22-23

1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드시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3:31-32

31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도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32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면, 하나님도 자신 안에서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곧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17 장 22 절과 23 절에 있는
하나를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믿는 이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믿는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2 년, 2 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54 장, 6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믿는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의 첫 번째
근거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듭남이고,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신께로 분별되는
거룩하게 됨이다. ... 하나 되는 것의 세 번째
근거는 두 번째 근거보다 더 깊고 더 높다.
그것은 신성한 영광의 나타남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 세상에서 분별된 후에 우리는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골 1:27),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

우리가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 되려면,
우리 자신을 버리고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어야 한다(갈 2:20).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버릴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매우
많은 세상적인 장소들과 세상적인 것들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의견과
사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이전에 우리는 갈라져서 여러
세상적인 장소에 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아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생명 곧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 ...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처럼 믿는 이들이 하나되는
것에는 세 가지 근거 또는 단계가 있다. 곧
거듭남, 거룩하게 됨, 영광스럽게 됨이다.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분별되어 삼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며,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정도까지 신성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 교회생활 안에 있는
형제들이 어느 날 서로 따지고 논쟁하다가
다음 날에는 서로 자백하고 사과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아직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온전히 실재화하는 날,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신성한
영광의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실재화하는
그날이 바로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는 날일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자아와 의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될 것이다. ...
우리가 이 지점에 도달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영광에 의해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됨으로써 단체적인
방식으로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믿는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의 세 번째
방면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의 방면에서,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부인한 믿는 이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요인으로 누려, 단체적이고도 건축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 ... 믿는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으며,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것이다.(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40, 259-2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2년, 2 권, 요한의 글에 있는 성막과 제물들의 성취, 50-51, 53-54 장;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40

2/15 토요일

아침의 누림

요 17:5, 22

5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엡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 14:13 또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 15:8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으로 내 아버지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될 것입니다.

빌 1: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벤전 4:11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계 21:10-11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4 장부터 16 장까지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의 중점은 아들께서 영광스럽게 되시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기 전에 영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 영광을 가지고 육체 되심으로 육체를 입으셨을 때, 이 영광은 그분의 육체 안에 숨겨졌다. ...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의 표현인 신성한 영광은 주님의 인성 안에 갇히고 숨겨졌다.

아들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되셔서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가? 바로 교회에 의해서이다. 교회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표현되시고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의 하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그때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교회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로 연결되는 문제를 포함하며, 또 그것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다(엡 3:21).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8, 149, 153, 15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영광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표현이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산다면 신성한 영광을 표현할 것이다. 성도들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의해 살수록 교회생활은 더 영광스러울 것이고 교회 안에는 신성한 영광이 더 많아질 것이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하나 안에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 영광스럽게 되신다(요 17:23). 요한복음 15 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4-5 절). 그러나 17 장에서 주님은 ... 그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신 것같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기도하셨다. 신성한 삼일성계는 이렇게 상호 내재하는 놀라운 하나가 있으시다. 이렇게

상호 내재하는 하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에 의해 복사되었다. 오늘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계시어 그분의 믿는 이들을 그 분 안에 있게 하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어 아들을 아버지 안에 계시게 하는 것과 같다. 17 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러한 상호 내재하는 하나에 대한 계시이다.

요한복음 17 장에 나오는 하나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위한 것이다. 이 하나가 사실상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이다. 아들은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다. ... 하나는 영광스럽게 됨이고, 영광스럽게 됨은 새사람이며, 새사람은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는 아버지의 집이다(14-17 장). 주님은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영광스럽게 됨은 사실상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며, 이 연합이 요한복음 17 장에 있는 놀라운 하나이다. 이러한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삼일 하나님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 안에서 지켜진다. 이것이 신약의 계시의 중점이다.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인성이 신성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어느 날 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영광의 나타남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럴 때 영광스럽게 됨 위에 영광스럽게 됨이 있고, 영광스럽게 됨 안에 영광스럽게 됨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계 21:10-11)이 있을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8, 155-15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하는 일을 위한 기초, 4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59년, 1 권, 영문판, 402-417 쪽;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4 장

영광의 자유로 나를 이끄는 주님
난 그와 하나 온전히 이루리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8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88

찬송: 949 (英) 내 생명된 그리스도 (中:763)

1 내 생명 된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날 거둬나게 하고 또 적셔주시네
정복의 능력으로 내 몸을 변케 해
그 영광스런 몸으로 변케 해

(후렴)

주님 오네 날 영광스-럽게
나의 몸 주의 몸과 같이 변형시-키려
주님 오네 구속을 이루려
영광의 소망 주 올 때 우린 변형되리.

2 하나님 비밀인 주님 영광의 소망
하나님 총만 내 안에 나눠 주시네
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 영원히 누리리

3 완전한 구속인 주님 영광의 소망
내 몸의 구속 이뤄져 죽음 벗으리
주 오셔 나의 몸 영광스럽게 할 때
죽음 다 삼켜 영원히 이기리

4 내 역사인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주 그리스도의 체험 곧 나의 체험

2/16 주일

아침의 누림

빌 2:2-11

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10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